무주산골영화제 게스트 공개

박정민 · 고아성 · 최희서 · 수영 · 구교환 등 배우 다수 참여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관객과의 대화(GV) 및 산골토크 게스트를 공개했다.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관객과의 대화(GV) 및 산골토크 게스트를 공개했다. 영화제 기간 총 31회에 걸쳐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및 산골토크에는 영화감독 및 배우, 영화평론가 등 70여 명에 달하는 각 분야의 영화 전문가들이 무주를 방문해 영화제 관객과 함께 한다.

먼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 상영작 10편의 모든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영화제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박열〉(2017)의 배우 최희서와 〈꿈의 제인〉(2016)의 배우 구교환이 각각 한가람 감독 〈아워 바디〉와 이옥섭 감독 〈메기〉의 관객과의 대화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하며,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과 영화 〈이장〉은 감독 및 주요 출연 배우 전원이 무주를 찾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판' 섹션 상영작 〈막다른 골목의 추억〉 상영 후에는 최현영 감독과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수영, 타나카 순스케가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키즈스테이지'에서 상영하는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과 아역 배우 3명은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신설된 '넥스트 액터'의 첫 주인공인 배우 박정민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단편영화 4편과 장편영화 〈파수꾼〉, 〈사바하〉 상영 후 백은하 소장(백은하 배우연구소)의 진행으로 관객들과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특히 〈파수꾼〉 GV에는 배제기 배우도 함께 할 예정이다. 그리고 〈버닝〉 GV에는 이창동 감독과 함께 각본가로 참여한 오정미 작가가 참석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하나레이 베이〉 산골토크에는 〈막다른 골목의 추억〉 최현영 감독과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배우 김예은,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장건재 감독이 참여해 다양한 영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락' 섹션 상영작 〈항거:유관순 이야기〉 조민호 감독과 고아성, 정하담, 김예은 배우가 영화 상영 전 무대인사에 참여하며, '숲' 섹션 상영작 〈형사 Duelist〉와 〈M〉을 연출한 이명세 감독 역시 무주를 찾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성일, 이용철, 서동진, 신형철, 남다은 등 국내 주요 평론가들을 비롯하여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 장건재 영화감독, 주성철 씨네21 편집장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산골토크 및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관객들과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끌게 될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학교태권도 선수들 장하다

16명 출전 안효빈 학생 등 10명 메달… 군, 장학금 지급

무주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제56회 전북도민체전 태권도 종목 메달 획득 학생부 선수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선수들은 지난 5월 11일과 12일 펼쳐진 겨루기 종목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로 안효빈 학생(무주중 3년, 금메달)과 배혁 학생(무주중 2년, 금메달), 임서연 학생(설천초 5년, 금메달), 정영훈 학생(무주중 1년, 은메달), 강성균 학생(무주중 2년, 은메달), 김석현 학생(무주중 1년, 은메달), 엄지원 학생(설천초 5년, 은메달), 최희성 학생(설천초 5년, 은메달), 박서진 학생(설천초 5년, 은메달), 송재웅 학생(무주중 2년, 동메달)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도 따고 장학금도 받아서 너무 좋다"라며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돼서 무주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56회 도민체전 태권도 종목에는 총 16명의 무주군 학교태권도선수부(초등학교 - 설천, 안성 / 중학교 - 무주 / 고등학교 - 무주) 소속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설천고등학교 3년 박해성 학생은 품새 종목 일반부로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무주군 3년 안효빈(여중 미들급) 학생과 설천초 5년 임서연(여초 미들급) 학생은 오는 25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연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학교태권도선수부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훈련,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6시부터 천지가든에서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전 무주군선수단 해단식이 개최됐다.

무주군에서는 이번 대회 28개 종목에 총 388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태권도 종목(학생 · 일반부)에서 금 3개, 은 8개, 동 4개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탁구 종목에서는 남자 단체전 3위에 올랐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다"라며 "결속력을 다지고 가능성을 확인한 이번 대회의 경험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일상을 가꿔나가는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도시 숲 4개소 조성

진안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개선을 위해 3억원을 들여 관내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했다.

산림청은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실시설계 후 최근 △진안읍 월랑공원, △명인명품관, △관광정보센터, △로터리 일원 등 4개소에 도시 숲을 만들었다. 기존 수종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스트로브 잣나무를 포함한 16종 9,852주와 핑크뮬리 등 3종 57,48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진안시니어클럽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진안의 특산물인 유과와 홍삼을 결합해 홍삼한과를 제조하는 '마이산 정기담은 고원한과' 사업을 응모해 고령화 친화기업에 선정됐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 고령자를 고용 운영하는 기업이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오는 6월 개관할 진안시니어클럽의 첫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노인일자리 800개를 확충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공중보건의사 무주군 탐방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23일과 24일 양일 간 "무주군 바로 알기' 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무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무주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소속감과 상호 유대감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 등 8명이 2개조로 나뉘어 무주투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조로 배정된 4명은 23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태권도원,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을 견학하고 황인홍 군수와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2조에 편성된 공중보건의사들의 탐방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계남면민의 날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이대운씨 등 4명

장수군 계남면은 최근 면민의장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연식)를 열어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로 문화체육장에 이대운(59), 산업공익장에 양양수(51), 애향장에 양호(66세), 효열장에 박점순(59)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장 이대운 씨는 20여 년간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육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으며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경로효친의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훈훈한 면민 정서 함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산업공익장 양양수 씨는 초창기 오미자재배를 성공하여 오미자작목반을 결성, GAP인증으로 신재배기술 보급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으며, 한우선도농가로 고품질 한우사육을 통한 농가소득향상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마을 이장,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애향장 양호 씨는 재경계남면향우회 전직 회장으로서 향우회의 활성화와 친목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고향방문 행사 등을 통한 고향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효열장 박점순 씨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100세인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봉양하고 있으며, 10여 년째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극진히 봉양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생신에 상수연(上壽宴)을 베풀어 지역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김연식 계남면장은 "이번 면민의장 수상자들의 훌륭한 삶이 귀감이 되어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남면은 6월 15일 제29회 계남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면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또 큰일 냈다

재능기부로 꽃피운 '제7호 사랑의 집' 탄생시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는 23일, 진안읍 상가막 마을에서 '제7호 진안군 진안읍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가짐으로 62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날 입주식에는 최성용 부군수를 비롯해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진안쌍봉사 보경스님, 진안군성수면자원봉사단(단장 김우식), 진안군주천면자원봉사단(단장 김경남), 진안군마령면자원봉사단(단장 채권자), 진안군재난자원봉사단(단장 조명열), 진안군사랑의 열매봉사단(회장 김운봉)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입주를 축하했다.

최성용 부군수는 "진안군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재능과 관심으로 큰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 김씨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항상 위험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듯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선물 받아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 가족들과 더욱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제7호 사랑의 집은 지난 해 자원봉사자의 추천을 통한 철저한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안타까운 현실과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전해들은 벚꽃마을(대표 이은주)을 비롯한 관내 기업, 종교계, 개인 등의 후원금 기증과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 전개로 사랑의 집 신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올 해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집수리 전문공구차량에 비치된 공구를 사용하여 봉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능기부를 펼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노후주택 철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진안=우태만 기자